

건설엔지니어링,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

- 기술인 BIM 역량 평가·실적 기준 완화... 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
- 중·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(83% 이상→85.5% 이상)하여 내실화

□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*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,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.

*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숲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①「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, ②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, ③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」 개정안을 마련하여, 12월 28일(목) 부터 시행한다.

* ①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/ ②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/ ③ 중·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

□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('22.7월)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 되어 왔으나,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.
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(가격·기술 종합심사)의 평가항목에 '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'을 신설하여,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- 또한,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(10년간 10건→7건)하여,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.

□ 아울러, 중·소규모 설계용역(2.2억 이상~10억 미만)의 경우 다른 기관(조달청, 환경부 등)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·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% 이상에서 85.5%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.

-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 (044-201-3561)
		담당자	사무관	윤상원 (044-201-3570)
			사무관	김민진 (044-201-3566)
			주무관	이상진 (044-201-3567)



참고

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배점 신설

* 「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

- 종합심사낙찰제* 평가기준 중 ‘전문가 역량’ 평가항목에 ‘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’ 평가항목을 신설

* (적용 대상)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기본계획·기본설계 /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실시설계

<현 행>			<개 정>		
평가항목		배점	평가항목		배점
·	·	·	·	·	·
전문가 역량	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	55	전문가 역량	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BIM 등 스마트건설 기술인 역량	55
·	·	·	·	·	·
합계		100	합계		100

②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 실적 기준 완화

* 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

- 적격심사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PQ) 기준 중 분야별 책임 기술인 실적 만점 기준치를 하향(10→7건, 10년간)

【 [별표1]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中 발취】

(2) 분야별 책임기술인	(19)	
(가) 등급	4	- 등급에 따라 평가(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)
(나) 경력	7	-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(단,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)
(다) 실적	8	- 용역의 종류, 건수,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(단,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)
		☞ (개정안) (단,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)

③ 중·소규모(2.2억 이상~10억 미만)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

* 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」

- 종합평점(기술점수 70% + 가격점수 30%) 기준점수를 상향하여(90→95점), 업체가 기준 가격(예정가격의 85.5%) 이상으로 투찰하도록 유도